

태권도 학생운동선수가 지각한 긍정적 코칭행동과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의 구조모형검증

임태희(용인대학교 교수) · 양윤경*(강남대학교 박사과정) · 이창민(용인대학교 석사과정) ·
배준수(용인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이 연구는 고등학교 태권도 학생운동선수가 지각한 긍정적 코칭행동과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2019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태권도 겨루기 종목 고등학생 선수 337명(남자=272, 여자=65)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학생운동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을 낮춘다. 둘째, 태권도 학생운동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행동을 낮추는 반면 반사회행동을 높인다. 셋째,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학생운동선수들의 친사회행동을 높이는 반면 반사회행동을 낮춘다. 결론적으로 지도자는 태권도 학생운동선수들의 도덕적 이탈과 같은 인지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여 반사회행동을 예방하고 친사회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긍정적 코칭행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친사회행동, 반사회행동, 구조방정식모형, 학생선수

I. 서론

국내에는 약 1만 6천 명의 스포츠 지도자들이 있다(대한체육회, 2019). 이들은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생운동선수들과 상호작용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는 학생운동선수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학습 및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병철, 이형일, 2014). 실제로 여러 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도자의 코칭특성은 팀의 분위기나 선수의 운동성장에 영향을 미친다(유종상, 이정수, 2016). 또한 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따라서 선수들의 운동지속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조광민, 박상현, 김영선, 2018). 게다가 지도유형은 선수들의 만족감이나 팀의 응집력 그리고 운동몰입의 수준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김형수, 2013). 따라서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지도유형은 학생운동선수들의 다양한 내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내적 요인 중에서도 최근에는 선수들의 스포츠 인성(sport character)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포츠 환경에서 폭력 · 폭언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지도자 · 선수 사이에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 및 학습권, 그리고 인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양윤경, 임태희, 2019).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스포츠 연구자들에 의해 인성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이 과거부터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윤혜성, 임태희, 장창용, 2017). 특히 태권도 연구자들은 인성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왔다. 이들은 태권도 경기에서 나타나는 선수의 스포츠 인성을 연구하기 위해 ‘도덕행동(moral behavio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 2016; 장창용, 윤혜성, 배준수, 2016).

도덕행동은 Bandura(1991)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선수의 도덕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행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 관점에서 도덕행동은 선수의 내적기제인 자기규제체계(self-regulatory process)를 통하여 나타난다(Bandura, 2004). 자기규제체계는 개인이 고유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허용하거나 혹은 자기 죄책감을 주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사회규범(예: 법, 규칙 등)이나 주요타자(예: 부모, 지도자 등)에 의해 형성된다(Bandura, 1999).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선수의 도덕성은 결국 내적기제라는 고유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동이 도덕적인지 혹은 비도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Bandura, 2004).

Kavussanu와 Boardley(2009)는 Bandura(1991)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도덕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친사회행동(prosocial behavior)과 반사회행동(antisocial behavior) 개념을 제시하였다(Kavussanu, 2006; Sage, Kavussanu, & Duda, 2006). 스포츠 도덕행동은 동료와 상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Kavussanu & Boardley, 2009). 친사회행동이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다(Weinstein & Ryan, 2010). 근육경련이 일어난 팀원에게 다가가 스트레칭을 해주는 행위, 패자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장창용 등, 2016).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반사회행동은 타인의 불이익을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승리를 위해 반칙하는 행위다(Sage et al., 2006). 상대에게 고의적인 태클을 가하는 행위, 상대에게 폭언을 내뱉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장창용 등, 2016).

한편 사회인지이론에 기반을 둔 도덕행동 개념은 행동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결코 선수의 인지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선수들은 반사회행동(예: 반칙, 분노표출 등)을 할 때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이를 회피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 현상이 일어나는데 학자들은 이를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라고 부른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andura(1999)는 도덕적 이탈이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 완곡한 명명(euphemistic labeling), 유리한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결과 왜곡(disregard or distortion of consequences), 비인간화(dehumanization), 비난에 대한 귀인(attribution of blame), 책임감 대체(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그리고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등과 같은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선수는 이 여덟 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덕적 이탈은 스포츠 환경에서 반사회행동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이 높은 수준으로 작용하면 반사회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Boardley & Kavussanu, 2010; Hodge & Lonsdale, 2011). 또한 Long, Pantaleon, Bruant와 d'Arripe-Longueville(2006)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 16.5세의 학생운동선수들이 반사회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덕적 이탈을 사용했다는 결과는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김선욱 등, 2016; 송용관, 천승현, 장윤정, 김보람, 2016)은 지도자의 자율적·통제적 코칭이 선수들의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코칭이 지속될 경우 선수들은 도덕적 이탈을 함으로써 반사회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도덕적 이탈은 선수들의 도덕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선욱, 양명환, 2015).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은 스포츠 인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이탈은 왜곡된 해석으로 비도덕적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 스포츠 인성을 예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도덕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선수들의 인지과정인 도덕적 이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스포츠 환경에서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 변인들과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코칭행동은 도덕적 이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둘째, 긍정적 코칭행동은 친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2-1). 긍정적 코칭행동은 반사회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2-2). 셋째,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3-1).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3-2). 연구가설을 토대로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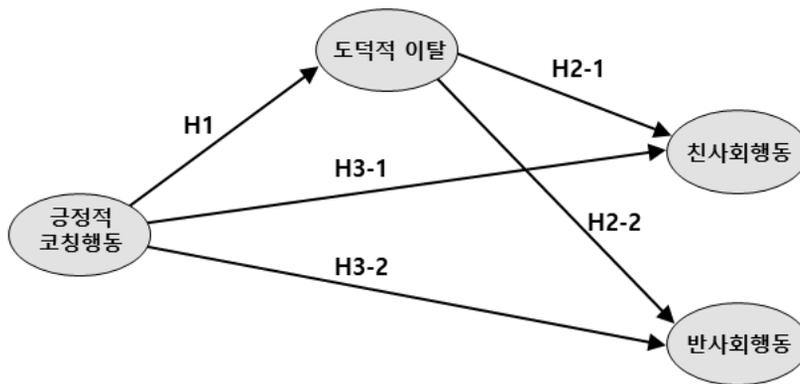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과 가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2019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고등학생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다. 자료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소속된 태권도선수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 12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337명(남=272, 여=6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7.87세(SD=.76)였고, 운동경력은 1년부터 6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변인	구분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	272	80.7
	여	65	19.3
연령(학년)	17세 (1학년)	123	36.5
	18세 (2학년)	136	40.4
	19세 (3학년)	78	23.1
운동경력	1~2년	116	34.4
	3~5년	120	35.6
	6년 이상	101	30.0
합계	337	100	

2. 측정도구

1) 긍정적 코칭행동

긍정적 코칭행동 척도는 Chelladurai와 Saleh(1980)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한태환, 김기환과 심상신(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스포츠 리더십 유형 척도(Leadership Scale for Sports, LSS)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훈련 및 지시행동, 민주적 행동,

사회적지지 행동, 그리고 긍정적 보상행동을 사용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선수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종태, 한남익, 2012). 따라서 권위적 행동을 제외한 LSS 척도는 총 4요인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의 불성실한 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원척도의 문항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의 수를 축소하였다. 따라서 훈련 및 지시행동 8문항, 민주적 행동 8문항, 사회적 지지 행동 5문항, 긍정적 보상행동 5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 척도는 Boardley와 Kavussanu(2008)가 개발하고 김선욱과 양명환(2015)이 사용한 스포츠 도덕적 이탈 척도(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 MDSS-S)를 태권도 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합리화하거나 왜곡해석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1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포츠 인성

스포츠 인성은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개발하고 장창용 등(2016)이 타당화하여 윤혜성 등(2017)의 연구에서 활용된 스포츠 친사회 및 반사회 척도(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료에 대한 친사회행동(4문항), 동료에 대한 반사회행동(3문항)과 상대에 대한 친사회행동(5문항),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사회행동(8문항)으로 총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 수는 총 20개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4)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모형적합도 지수(χ^2/df , CFI, TLI, RMSEA, SRMR)와 β (표준화회귀계수)값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및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문항의 제거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문항의 적절성과 이론적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코칭행동은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훈련 및 지시행동 4문항, 민주적 행동 3문항, 사회적 지지행동 1문항, 긍정적 보상행동 1문항이 제거되었다. 제거 후 신뢰도는 훈련 및 지시행동 .783, 민주적 행동 .893, 사회적 지지행동 .787, 긍정적 보상행동 .708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 = 3.157$, CFI=.918, TLI=.901, RMSEA=.080, SRMR=.052로 나타났고, β 값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둘째, 도덕적 이탈은 4개의 문항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7개의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의 신뢰도는 .831이었고, 모형적합도는 $\chi^2/df = 1.337$, CFI=.991, TLI=.986, RMSEA=.039, SRMR=.028로 나타났다. β 값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셋째, 스포츠 인성은 동료친사회행동 1문항, 동료반사회행동 1문항, 상대반사회행동 4문항이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제거되었다. 제거된 후 요인의 신뢰도는 동료친사회행동 .868, 상대친사회행동 .706, 동료반사회행동 .788, 그리고 상대반사회행동 .907로 확인되었다. 모형적합도는 $\chi^2/df = 3.118$, CFI=.944, TLI=.928, RMSEA=.079, SRMR=.073으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요인의 표준화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1$).

한편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AVE(평균분산추출) 값과 C.R.(개념신뢰도) 값을 추가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코칭행동의 훈련 및 지시행동 요인과 사회적지지 요인, 그리고 도덕적 이탈 요인의 AVE 값이 기준치인 .5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R. 값이 기준치(>.7)를 충분히 상회하였다는 점, Cronbach's α 계수와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값이 만족스럽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이상의 내용은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모형적합도

Model	χ^2	df	χ^2/df	CFI	TLI	RMSEA	SRMR
긍정적 코칭행동	356.778 ($p < .000$)	113	3.157	.918	.901	.080 (90% CI = .071, .090)	.052
도덕적 이탈	18.719 ($p < .000$)	14	1.337	.991	.986	.039 (90% CI = .000, .080)	.028
스포츠 인성	221.363 ($p < .000$)	71	3.118	.944	.928	.079 (90% CI = .068, .091)	.073

3. 조사절차

이 연구는 직접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는 방식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고등학교 태권도 팀의 감독 또는 코치에게 연락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학교 및 훈련장에 직접 방문하였다. 이후 감독과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학생선수)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불성실한 응답을 예방하기 위해 자료의 보안에 대해 설명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보고식(self-report) 검사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 및 코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 버전과 AMOS 23버전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그리고 첨도(kurtosis)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왜도와 첨도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이때 왜도와 첨도의 경우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왜도 절대값 3이하, 첨도 절대값 8이하일 때 자료가 정규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긍정적 코칭행동,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 계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r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을 가진다고 해석하였고, +값일 경우 정적인 상관, -값일 경우 부적인 상관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세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χ^2/df , CFI, TLI, RMSEA, 그리고 SRMR을 사용하였다. Kline(2015)에 따르면, χ^2/df 은 3이하일 때, CFI와 TLI는 .9이상일 때, 그리고 RMSEA와 SRMR은 .08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요인	문항	B	β	S.E.	t	AVE	C.R.	α
훈련	훈련1 선수들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00	.663	-	-	.484	.789	.783
	훈련2 선수 각자에게 경기 기술과 전술을 설명해준다.	1.001	.707	.096	10.456***			
	훈련3 선수들의 실수를 고쳐주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1.065	.739	.099	10.778***			
	훈련5 선수들에게 경기 기술을 개인적으로 지도한다.	1.130	.671	.112	10.059***			
	민주2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선수들의 동의를 구한다.	1.000	.827	-	-			
긍정적 코칭행동	민주5 선수들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	1.079	.721	.067	16.084***	.566	.861	.893
	민주4 연습방법에 대해 선수들의 의견을 묻는다.	1.140	.428	.069	16.555***			
	민주6 훈련시 선수들 방식대로 해 보도록 놔둔다.	1.180	.801	.070	16.757***			
	민주8 시합 전술, 전략을 선수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1.087	.895	.077	14.078***			
사회	사회1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다.	1.000	.777	-	-	.480	.784	.787
	사회2 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306	.758	.168	7.761***			
	사회3 선수들의 부상방지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	1.543	.608	.193	7.988***			
	사회4 선수들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푼다.	1.449	.609	.188	7.689***			
긍정	긍정1 경기를 잘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준다.	1.000	.452	-	-	.538	.817	.708
	긍정2 선수가 특별히 잘했을 때 '잘했다'고 말해준다.	.851	.797	.078	10.939***			
	긍정4 선수들이 경기를 잘할 때 칭찬을 한다.	1.051	.801	.096	10.953***			
	긍정5 선수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제 때에 인정해 준다.	.528	.819	.066	7.998***			
	도덕적 이탈	이탈11 반칙이 상대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반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000	.787	-			
이탈3 심판에게 대드는 것이 우리 팀에 유리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511	.529	.067	7.687***			

변수/요인	문항	B	β	S.E.	t	AVE	C.R.	α
이탈	이탈6 선수들 간의 무례한 짓은 실제로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668	.440	.106	6.318***			
	이탈7 우리팀 동료들을 욕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해도 괜찮다.	.756	.700	.072	10.434***			
	이탈8 모든 선수들이 반칙을 한다면 내가 반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997	.778	.085	11.692***			
	이탈9 가끔씩 반칙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24	.692	.099	10.312***			
	이탈10 어떤 선수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칠게 대해줘야 한다.	.910	.640	.096	9.460***			
동료친1	나는 팀 동료를 격려해준다.	1.000	.995	-	-			
동료친3	나는 팀 동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	1.979	.913	.156	12.723***	.684	.857	.868
동료친4	나는 팀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준다.	1.754	.477	.138	12.742***			
상대친1	나는 부상당한 상대를 돕는다.	1.000	.857	-	-			
상대친2	나는 상대가 부상을 당했을 때 경기중단을 요구한다.	2.047	.691	.283	7.243***	.551	.784	.706
스포트츠인성	상대친3 나는 코트에서 상대를 돕는다.	1.677	.665	.223	7.529***			
동료반1	나는 팀 동료에게 함부로 말한다.	1.000	.849	-	-			
동료반2	나는 팀 동료에게 욕설을 한다.	1.466	.775	.121	12.166***			
동료반3	나는 팀 동료와 의견충돌을 일으킨다.	1.403	.862	.120	11.665***	.583	.844	.788
동료반5	나는 팀 동료의 좋지 않는 수행에 불만을 나타낸다.	.934	.516	.112	8.309***			
상대반3	나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인 반칙을 한다.	1.000	.943	-	-			
상대반4	나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방해한다.	.891	.689	.041	21.778***			
상대반6	나는 의도적으로 경기규칙에 대한 위반을 한다.	.982	.592	.038	25.555***	.622	.864	.907
상대반8	나는 상대를 비판한다.	.701	.880	.047	14.887***			

***p<.001

Ⅲ. 결 과

1. 기술통계

수집된 자료의 속성을 파악하고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그리고

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 범위는 최소 1.25에서 최대 4.74였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최소 .48에서 최대 1.23이었다. 또한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알아본 왜도의 범위는 -1.67에서 1.89였고 침도의 범위는 -.81에서 4.87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성을 가정하는 기준치(왜도 3이하, 침도 8이하)를 충족하는 값이다(Kline, 2015).

2. 상관관계

각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첫째, 긍정적 코칭행동과 도덕적 이탈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긍정적 코칭행동 중 사회적 지지행동이 도덕적 이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값($r = -.285$)을 지니고 있었고 긍정적 보상행동($r = -.257$), 민주적 행동($r = -.235$), 그리고 훈련 및 지시행동($r = -.168$)의 순이었다.

둘째, 도덕적 이탈과 스포츠 인성의 관계에서도 모든 하위요인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료반사회행동($r = .233$, $p < .01$)과 상대반사회행동($r = .414$, $p < .01$)은 도덕적 이탈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반면 동료친사회행동($r = -.283$, $p < .01$)과 상대친사회행동($r = -.177$, $p < .01$)은 도덕적 이탈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 코칭행동과 스포츠 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코칭행동과 친사회행동(동료 및 상대)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반사회행동(동료 및 상대)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친사회행동에서는 동료친사회행동과 사회적 지지행동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 값을 보였다($r = .431$, $p < .01$). 반면 반사회행동에서는 동료반사회행동과 긍정적 보상행동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 값을 가졌다($r = -.468$, $p < .01$). 나머지 구체적인 값들은 아래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긍정적 코칭행동, 도덕적 이탈, 도덕 행동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혼련지시 행동									
2. 민주적 행동	.512**								
3. 사회적 지지행동	.559**	.638**							
4. 긍정적 보상행동	.528**	.681**	.653**						
5. 도덕적 이탈	-.168**	-.235**	-.285**	-.257**					
6. 동료친사회	.389**	.333**	.431**	.443**	-.283**				
7. 상대친사회	.136*	.234**	.211**	.281**	-.177**	.355**			
8. 동료반사회	-.299**	-.450**	-.365**	-.468**	.233**	-.421**	-.217**		
9. 상대반사회	-.254**	-.215**	-.334**	-.297**	.414**	-.389**	-.136*	.441**	

* $p < .05$, ** $p < .01$

3. 구조모형 검증

1) 모형적합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χ^2/df 는 2.343, CFI는 .936, TLI는 .921, RMSEA는 .063, 그리고 SRMR은 .0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각각의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χ^2/df 는 3이하, CFI와 TLI는 .9이상, RMSEA와 SRMR은 .08이하라는 기준 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하였다(홍세희, 2017; Kline, 2015).

표 5. 모형적합도

Model	χ^2	df	χ^2/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	199.155 ($p < .000$)	85	2.343	.936	.921	.063 (90% CI = .052, .075)	.052
기준치			3이하	.9이상	.9이상	.08이하	.08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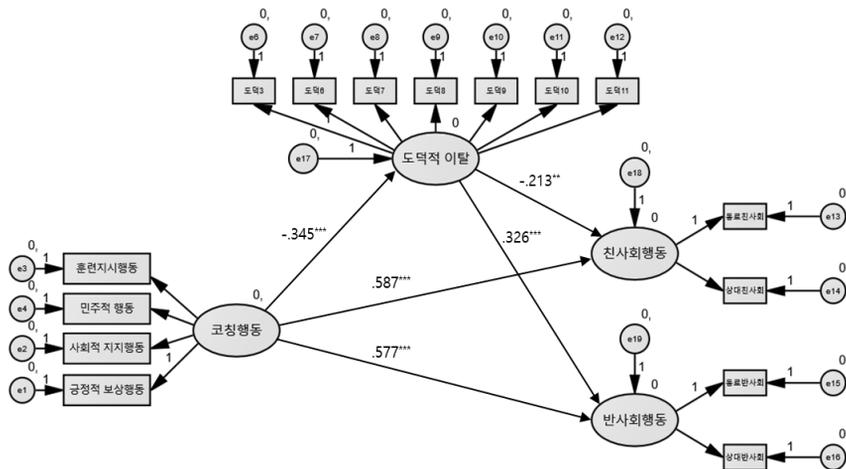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회귀계수를 알아본 결과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태권도 학생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도덕적 이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45, p < .001$). 둘째,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213, p < .01$), 반사회행동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26, p < .001$). 끝으로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친사회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87, p < .001$), 반사회행동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 = -.577, p < .001$).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고, <그림 1>에는 연구모형과 표준화회귀계수(β)를 제시하였다.

표 6. 경로계수

가설	종속	독립	B	β	S.E.	t	결과
H1	도덕적 이탈	<--- 긍정적 코칭행동	-.220	-.345	.045	-4.935***	채택
H2-1	친사회행동	<--- 도덕적 이탈	-.350	-.213	.114	-3.070**	채택
H2-2	반사회행동	<--- 도덕적 이탈	.495	.326	.116	4.260***	채택
H3-1	친사회행동	<--- 긍정적 코칭행동	.614	.587	.074	8.354***	채택
H3-2	반사회행동	<--- 긍정적 코칭행동	-.560	-.577	.074	-7.542***	채택

** $p < .01$, *** $p < .001$



Note. 그림의 수치는 표준화회귀계수(β)임.

그림 1. 연구모형

IV. 논 의

이 연구는 태권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과 선수의 도덕적 이탈 및 스포츠 인성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태권도선수 33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는 기술통계·상관관계·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코칭행동은 도덕적 이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H1 채택). 이 결과는 청소년 태권도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통제적 코칭방식이 도덕적 이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선욱 등, 2016)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거부적 태도 및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덕적 이탈 수준을 증가(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Hyde, Shaw, & Molianen, 2010)시키는 반면, 애정 및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도덕적 이탈 수준을 낮춘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현, 2017; Bao, Zhang, Lai, Sun, & Wang, 2015).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보면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목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훈련 안팎에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할 때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이나 인지왜곡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Bandura et al., 1996)에서는 청소년이 지도자나 부모의 반사회행동을 모델링(modeling, 관찰학습)하여 도덕적 이탈 현상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비난과 비판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비합리적인 판단과 공격적인 태도 및 신념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Bao et al., 2015). 이러한 부모를 모델링 한 자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타인을 비난하고, 비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정당화하며,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과 같이 인지적 왜곡 현상에 빠지기 쉽다.

학생운동선수의 경우 부모의 영향 못지않게 지도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Chelladurai & Saleh, 1980). 사회인지이론에서 설명하는 도덕적 이탈 현상은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통제적인 코칭행동을 나타내는 지도자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선수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도하며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수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경쟁심이 유발되고 코치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반칙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와 같은 반사회행동을 일삼는다. 이때 선수들

은 자신의 반사회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적 이탈 현상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 환경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선수들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신의 코칭유형이나 특성이 선수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H2-1, H2-2 채택). 이는 남자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도덕적 이탈 과정을 질적으로 살펴본 Long 등(2006)의 연구와 관련이 깊다. 인터뷰 과정에서 한 선수는 가끔 코치로부터 규칙을 어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그 행동은 주로 팀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는 행위, 반칙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었다. Long 등(2006)은 코치의 이러한 지시들이 선수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고 친사회행동을 감소시키거나 반사회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김노라, 조명진, 2017, 서미정, 2013, Kavussanu, Ring, & Kavanagh, 2015)이 도덕적 이탈과 친사회 및 반사회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McAlister, Bandura와 Owen(2006)은 네 가지의 자기규제기제를 활용하여 도덕적 이탈을 설명하였다. 이는 반사회행동 자체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 반사회행동과 결과 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 반사회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왜곡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인성이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스포츠에 적용하면 선수는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사회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반응(예: 죄책감)을 억제하여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자신의 승리 또는 유리한 상황을 위해 반칙과 같은 반사회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친사회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H3-1, H3-2 채택). 이는 송용관, 천승현, 김승재(2018)가 자율성지 지 상호소통방식이 친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행동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12)에 따르면 개인은 자율성 욕구를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지지받는 환경에서는 심리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외적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욕구가 좌절될 수 있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이때 심리욕구가 충족되면 긍정적인 정서 및 행동결과로 연결되는 반면 욕구가 좌절될 경우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결과를 유발한다(Jang, Kim, & Reeve, 2016).

지도자의 긍정적인 코칭행동과 유사한 자율성을 지지하는 상호소통방식은 지도자와 선수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Ntoumanis, Quested, Reeve, & Cheon, 2017). 선수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존중받으며 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도성

을 기른다(송용관 등, 2018). 따라서 지도자의 긍정적인 코칭행동은 선수의 심리욕구를 충족 시킴으로써 친사회행동을 높이고 반사회행동을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고등학교 태권도 학생운동선수가 지각한 긍정적 코칭행동과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에 대한 구조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고등학교 태권도 학생운동선수의 도덕적 이탈과 친사회 및 반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올바른 도덕적 태도와 행동을 갖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운동선수의 도덕적 인지과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지도자·부모·또래 등과 사회적 지원이다(박영신, 김의철, 2003). 따라서 지도자의 코칭행동 외에 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운동선수의 올바른 인성 및 도덕행동을 개발할 수 있는 중재전략 개발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태권도 학생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과 선수의 도덕적 이탈 및 스포츠 인성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학생운동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을 낮춘다.

둘째, 태권도 학생운동선수들의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행동을 낮추는 반면 반사회행동을 높인다.

셋째,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학생운동선수들의 친사회행동을 높이는 반면 반사회행동을 낮춘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학생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모형은 타당하다. 즉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도덕적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태권도 지도자

들은 선수들을 지도할 때 명확한 훈련 목적 및 선수들이 지켜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훈련 및 지시행동)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정보 피드백(긍정적 보상행동)과 생산적인 대화와 지원(사회적 지지 행동)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선수와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이들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민주적 행동).

2. 제언

이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각된 긍정적 코칭행동,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이 뚜렷한 상관 및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 코칭행동과 스포츠 인성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에 대한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도덕적 이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친사회행동이나 반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 인성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선수들의 인지과정에 더 많은 초점을 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친사회행동 및 반사회행동 개념을 제시한 이후 사회인지이론 관점에서의 스포츠 인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접근에서 구조발달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수들의 인지적 과정과 의도(intention)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도덕적 이탈과 같은 변인들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포츠 인성 연구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선수들의 스포츠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은 부모·지도자·팀의 분위기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핵심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직접적인 영향인지 간접적인 영향인지, 단기적인 영향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인지 등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학생선수의 스포츠 인성에 주요타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노라, 조명진(2017). 운동선수의 사회적 정체성,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193-203.
- 김선욱, 양명환(2015).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7(4), 25-35.
- 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2016). 코칭 방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18(2), 41-61.
- 김형수(2013). 태권도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이 선수만족, 집단응집력 및 수련몰입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5(1), 43-54.
- 대한체육회(2019). **스포츠 지원포털(전문체육 등록통계현황)**. <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방문일자: 2019.11.9.
- 박영신, 김의철(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11).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 친구, 도덕적이탈 및 관계효능감의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25(3), 617-645.
- 박종태, 한남익(2012). 초등학교 축구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스포츠맨십 및 인성과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4(3), 24-33.
- 서미정(2013).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23-138.
- 송용관, 천승현, 장윤정, 김보람(2016). 통계적 코칭행동이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욕구, 소진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1), 69-88.
- 송용관, 천승현, 김승재(2018). 지도자의 상호소통방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 정신력, 집단효능감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407-424.
- 양윤경, 임태희(2019). 스포츠 폭력으로 발생한 선수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해결중심 상담 기반 자기주장훈련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30(2), 423-440.
- 유종상, 이정수(2016).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특성과 팀 분위기 및 운동성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261-271.
- 윤혜성, 임태희, 장창용(2017). 초·중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포츠 도덕행동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8(3), 61-70.
- 이현(2017).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도덕적 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2), 51-69.
- 장창용, 윤혜성, 배준수(2016). 스포츠 도덕행동 척도 타당성 검증: 중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중심으로. **국기원 태권도연구**, 7(4), 215-230.

- 정병철, 이형일(2014).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선수들의 스포츠 경쟁상황에서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9(4), 81-92.
- 조광민, 박상현, 김영선(2018). 품새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고등학교 선수의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신감의 조절효과. *국기원 태권도연구*, 9(3), 1-21.
- 한태환, 김기환, 심상신(2012).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선수만족도 및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6, 21-38.
- 홍세희(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이론과 적용*. 박영사.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3), 193-209.
- Bandura, A. (2004). Selective exercise of moral agency. In *Nurturing morality* (pp. 37-57). Springer, Boston, MA.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
- Bao, Z., Zhang, W., Lai, X., Sun, W., & Wang, Y. (2015). Parental attachment and chinese adolescents'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Adolescence*, 44, 37-47.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08). The 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short. *Journal of sports sciences*, 26(14), 1507-1517.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10). Effects of goal orientation and perceived value of toughness on antisocial behavior in soccer: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2), 176-192.
- Chelladurai, P., & Saleh, S. D. (1980). Dimensions of leader behavior in sports: Development of a leadership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 34-45.
- Deci, E. L., & Ryan, R. M. (2012). Self-determination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 416-436). Sage Publications Ltd.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Hodge, K., & Lonsdale, C. (2011).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The role of

- coaching style, autonomous vs.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3(4), 527-547.
- Hyde, L. W., Shaw, D. S., & Moilanen, K. L. (2010). Developmental precursors of moral disengagement and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2), 197-209.
- Jang, H., Kim, E.-J., & Reeve, J. (2016). Why students become more engaged or more disengaged during the semester: A self-determination theory dual-process model. *Learning and Instruction*, 43, 27-38.
- Kavussanu, M. (2006). Motivational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football. *Journal of Sports Sciences*, 24(06), 575-588.
- Kavussanu, M., Ring, C., & Kavanagh, J. (2015). Antisocial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empathy and negative emotion: A comparison between disabled and able-bodied athletes. *Ethics & Behavior*, 25(4), 297-306.
- Kavussanu, M., & Boardley, I. D. (2009).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1(1), 97-11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ong, T., Pantaléon, N., Bruant, G., & d'Arripe-Longueville, F. (2006). A qualitative study of moral reasoning of young elite athletes. *The Sport Psychologist*, 20(3), 330-347.
- McAlister, A. L., Bandura, A., & Owen, S. V. (200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support of military force: The impact of Sept. 11.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2), 141-165.
- Ntoumanis, N., Quested, E., Reeve, J., & Cheon, S. H. (2017). Need supportive communication: Implication for motivation in sport,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In B. Jackson, J. A. Dimmock, & J. Compton (Eds.), *Persuasion and communication in sport,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Abingdon, UK: Routledge.
- Sage, L., Kavussanu, M., & Duda, J. (2006). Goal orientations and moral identity as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4(05), 455-466.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22.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erceived positive coaching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and sport character of Taekwondo student-athlete

Lim, Tae-Hee (Yongin University Professor) · Yang, Yun-Kyung (Ga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 Lee, Chang-Min (Yongin University Master's Course) · Bae, Jun-Su (Yongin University doctoral, course)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ositive perceived coaching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and sport character of Taekwondo student-athletes. Participants were 337 (male=272, female=65) high school Taekwondo sparring (kyorugi) athletes registered with the Korea Sports and Olympic Committee in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positive coaching behavior reduces negatively influenced moral disengagement of Taekwondo student-athletes. Second, moral disengagement had negative effect on prosocial behavior and positive effect on antisocial behavior of Taekwondo student-athletes. Third, while perceived positive coaching behavior positively effected on prosocial behavior, negatively effected on antisocial behavior. In conclusion, to prevent antisocial behavior and promote prosocial behavior by minimizing cognitive distortions such as moral dislocation of Taekwondo student-athletes, the coach needs to provide proper positive coaching behavior.

Keywords: prosocial behavior, antisocial behavi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athletes